

그 음악회에는 무슨 맛이 있었을까?

권중걸

한국식품연구원 성과확산홍보실



맛이 있는 음식은 오감을 즐겁게 하지만 맛이 있는 음악회는 과연 어떤 맛일까? 달까? 실까? 짭까? 요즘은 과일 나무에도 음악을 들려주어 과일의 당도를 높이고 아픈 사람도 병원에 서 음악 치료를 한다고 하니,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모든 동물은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자의 삶을 영위해간다. 특히 인간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여 기쁨과 슬픔, 열정과 비애, 욕망과 절제를 나타낸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진권 숙명여대 교수의 지휘 아래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맛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음악회는 대중적 친화감이 있는 국내외의 곡을 선곡하여 음식의 맛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른바 귀로 먹는 이색적이고 맛깔 나는 연주는 공연장 가득 울려 퍼져 좌석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청중을 감동시켰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는 겨우내 굳은 땅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먹을거리 씨앗들의 탄생과 성장을 느끼기에 충분하였고, 흥난파의 ‘고향의 봄’은 어릴 적 느낀 분홍빛 복사꽃의 아름다움과 그때 꺾어 먹고 따 먹었던 짙레, 진달래꽃 그리고 봄나물의 향기를 아련히 입가에 맴돌게 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윤용하의 '보리밭'은 6월이면 누렇게 여물어 솔바람에 일렁이는 고향의 보리밭과 늙으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했다. 곱살은 보리밭에 풋나물을 넣고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서 푹푹 먹어치워도 돌아서면 배고팠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또 바이올린의 현란한 기교와 열정으로 집시 개개인의 개성과 집시들이 끈질기게 고집하는 전통 방식의 삶을 표현한 사라사테의 '집시의 노래'는 한국 음식의 다양함과 여러 가지 반찬을 생각나게 했다. 끊임없이 이어온 한식의 전통과 독창성, 우수성을 음악에 실어 식탁에 차려낸 듯한 느낌이랄까. 다양한 음악적 기교는 한국 식탁에 오르는 수많은 반찬의 고유한 맛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는 여인의 눈물을 훔쳐본 남자에게 기쁨이 넘치는 설렘을 주었으리라. 한국 음식에서 사랑의 묘약과 같은 재료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한국의 모든 음식에 첨가되어 묘약과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고추다.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고추의 매운맛은 더러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그 맛이 뇌를 자극하여 계속 매운맛을 찾게 되니, 연인이 서로 그리워 하듯 한국 음식에서 사랑의 묘약은 단연코 고추다.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묘약」과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우리나라의 고춧가루는 음악과 맛이 최고로 맞아떨어지는 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고전 음악에서 어떻게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곡의 특성과 흐름을 이해하면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아우르는 맛의 향연을 느끼고 진한 감동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곡의 빠름과 느림, 강함과 약함 등 악기 고유의 음색으로 매운 고추장 맛부터 김치 익는 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 나물 무치는 소리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맛과 색깔을 표현한 이번 음악회에서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이번 「맛이 있는 음악회」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클래식 음악의 접목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한식의 세계화와 우리나라 식품 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000여 명이 넘은 청중의 박수 속에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이무하 원장은 미국의 영양인류학자 앤더슨의 말을 빌려 “좋은 식사는 심포니와 같다. 오늘 열린 「맛이 있는 음악회」는 익숙한 취향과 이국적인 취향이 서로 섞여 조화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재료로 하나의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는 비빔밥처럼 귀로 먹기에 훌륭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맛을 즐기고 느끼고 연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맑은 음악처럼 아름다웠다.